

기독교초등학교의 문학통합단원 개발사례연구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중심으로-

한진옥 (한동대 교육대학원)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교사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문학통합수업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절차를 명료화 하고, 시행 후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문학작품중심의 통합수업을 위해 개발한 단원을 문학통합 ‘단원’ 이라고 하고, 단원을 실행하는 것을 문학통합 ‘수업’ 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교사와 학생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문학통합수업의 효과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C기독교초등학교 개발 사례를 개발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가들이 문학통합단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통합단원 개발과정 8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학통합단원을 실행할 학년을 선정한다. 둘째, 해당 학년 학생들의 발달적 필요를 검토하여 시의 적절한 작품을 선정한다. 셋째, 기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목표 및 성취기준을 검토한다. 넷째, 반영할 국가수준 교수학습목표와 작품의 핵심 가치에 따라 단원 교수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설정한다. 다섯째, 설정된 목표와 활동에 따라 동학년 교사들이 나누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 후, 동학년 회의 시간에 수정, 보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여섯째, 단원의 흐름에 따라 평가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한다. 일곱째, 문학통합단원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실행 후에는 자유기술, 설문 방식을 통해 참여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단원개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다음 학년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든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문학통합수업의 효과성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학통합단원은 현행 국정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 수업의 몰입도가 향상된다. 셋째, 수업의 질이 개선 된다. 넷째는 배움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주제어: 기독교적 가치, 문학통합, 단원개발과정, 기독교 학교 교육과정, 사자와 마녀와 옷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식은 완성된 것,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거쳐 신지식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또한 다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확대, 발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인 지식의 객관성과 절대성을 전제로 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이 아닌

확립화된 교과서를 이용한 교사위주의 일방적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는 성적 경쟁과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교육의 중요한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각종 규칙과 권리의 제한으로 학생들을 타율적인 존재로 길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럼 바람직한 학교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많은 전문가나 교육계의 사람들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학교로 상정하고 있다(사토 마나부, 2000; Rogers, 2005). 공동체적인 학교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자율성,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이 실현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여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스템, 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실천 등이 공동체적 학교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거창한 말보다 교실, 수업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어야 실질적인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이 단순히 교과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사유와 경험, 실천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므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평가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연결성을 갖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경기도 교육청, 2012).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 통합 및 재구성이 학교 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혁신 학년을 지정해서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혁신 학교 학년의 모델을 찾아 사례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려는 추세이다(경기도 교육청, 2012). 그리고 저학년 개정 교과서는 주제중심으로 교과서를 편성하여 교과 통합을 더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학교는 일찍부터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단위나 학급단위의 개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Van Brummelen(2002), Overman & Jonhson(2003), Hay(1999) 등은 기독교 통합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준다.

그 동안은 방법론적인 부분의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면,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콘텐츠는 바로 문학작품이다. 최근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를 벗어나 학생들이 몰입할 대상으로서 문학작품에 주목하고 있다. Mason(1892)은 교육의

중착점은 아이들이 지식을 너무나 즐거워하여 평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행복의 원천으로 삼게 되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세상이 소유한 가장 멋진 생각이 책 속에 쌓여 있으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은 최고의 책들 펼쳐 주어야 한다고 하여 문학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식에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Mason은 어떤 개념도 사상가의 머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도달해야 하며, 그와 같은 최고의 사상에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런 사람이 저술한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Andreola, 2006).

이러한 ‘살아있는 책’의 가치를 온전히 얻기 위해 교사들은 문학작품 전체를 학교정규 교과과정 안으로 들여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문학통합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실례가 문학 작품을 통합의 바탕으로 삼은 책이 출판되고, 교사 연수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이다(문경민, 2010). ‘나니아 시리즈로 국어수업하기’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은 문학통합수업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한 증거일 것이다. 나니아 연대기로 수업하는 방법과 내용을 다룬 교사용 국어 수업 지도서뿐만 아니라 학생용 워크북과 함께 사용하도록 각각 구성하였다. 이 책은 국어 영역의 수업 내용뿐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관 교육의 도덕 영역, 민주시민의 자질과 준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 다양한 선택활동을 통해 음악, 미술, 체육의 영역까지 다루고 있어 다양한 교육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다음의 논문들 역시 다양한 문학통합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효진(2009) 중등과정에서 국어교과와 생활국어 교과의 분책이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합하는 교수 학습 방식을 제안하였다.

오경숙(2010)도 김효진과 비슷한 연구를 하였는데, <듣기, 말하기, 쓰기>와 <읽기>의 분절이 국어 교과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역시 문학 중심의 통합 단원을 구성하였다.

박순숙(2011)은 문학 교육을 살리고, 또한 언어기능 교육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문학 중심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처럼 국어 수업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에서 문학통합수업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 연구를 통해 문학 통합 단원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교사와 학생들에게 끼치는 교육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전까지의 문학 중심 통합 수업 연구는 국어 교과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교과까지의 통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기독교적 가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교과간 통합, 기독교적 가치 통합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분석해서 재구성의 절차를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기독교 초등학교에서의 문학중심통합수업의 필요와 그간의 노력에 대해 살펴본 후 문학중심 통합수업 단원개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단원개발 및 실행 절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문학통합수업 단원개발 내용으로 수업을 한 후 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문학통합단원개발 및 실행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문학통합단원 개발 및 실행을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 개발 및 실행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2.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적 가치함양을 위한 교과 재구성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시각으로 삶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 있는 제자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어떤 경향과 성향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Van Brummelen, 2006). 그렇다면 어떤 학습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적 경향과 성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³³⁴⁾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화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안목을 길러주는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단순히 색깔을 구분해 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 현상들은 다면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물 맷돌로 양떼를 지키던 습관을 좇아 풀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주변 세계의 모든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더 이치에 맞는 지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Overman, 2007).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재구성된 수업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본다.

334) (고후 10:4:5)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과정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중 핵심적인 한 차원이 교과재구성 수업이다. 교과 재구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를 수 있다 (Van Brummelen, 2006).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을 두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기술주의, 상대주의 등의 우상을 분별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 과정(thought process)의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사고 과정을 훈련하는 필터는 성경적 원리이다.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즉 성경적 원리를 알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분별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행동으로 까지 이어지게 하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고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상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한 것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도전 기회들을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학교의 교과재구성 수업이야말로 지속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한 방법이다.

이런 교과재구성의 예로 이정미(2008)는 기독교등학교의 재구성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주로 기독교학교 재구성은 국어와 사회교과의 선별적인 소단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보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과 기독교교육목표 달성이라는 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맥락에서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재구성 방법으로 학습 목표 설정이나, 학습 내용 선정이나, 학습 활동 구성에 기독교적 가치 통합 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정미(2008)가 제시한 재구성의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 교과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통합수업이다.

2. 가치 함양 재구성의 한 방법으로서의 문학통합수업

교과 재구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문학통합수업’은 무엇이고, 문학통합수업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문학통합수업’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학’에 초점을 맞춘 문학 중심 통합 단위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이상구, 2002), ‘통합’에 초점을 맞춘 의미도 있다.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기독교적 가치를 통합한다는 의미(Gabelein, 1991), 비슷한 맥락에서 진리와 실재를 통합한다는 의미(Parmer, 2000), 또 다른 차원으로는 교과목간의 통합한다는 의미(Edlin, 2004; 박상진, 2006)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통합’에 초점을 맞춘 의미도 있는데, 문학작품을 통합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교육과정 내로 가져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도 아닌, 가치관 통합, 실재와의 통합, 교과간 통합에만 만족하는 것도 아닌 ‘문학’과 ‘통합’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Lauritzen & Jaeger, 1997; Egan, 1986).

가. ‘문학’ 수업의 필요성

문학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의 성격은 해당 학문의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여타 교육과 달리 복합적이다. 이제 문학이라는 언어자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여러 국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문학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문학교육의 가치 또한 논자에 따라 달리 설명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언어교육, 예술교육, 문화교육,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적 측면은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의이자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첫째, 문학은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 문학은 예술교육의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셋째, 문학은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넷째, 문학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즉 문학 작품을 통한 정서의 울림 때문에 문학교육이 윤리나 도덕 교육보다 인간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인용에서 보드시피 문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느 사상서나 역사서보다 크다(구인환, 1996).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나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당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당대의 어떤 사상서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또 이광수가 자신의 개화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논설을 쓰기보다는 소설을 쓰기로 했으며, 그 이유가 그 전파성의 강도에 있다고 한말은 문학이 지닌 감동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피테가 말했듯이 문학은 인간을 내적으로 감동시켜 변화시킨다. 시든 소설이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인간을 감동시키고 상상적 체험으로 인생과 현실을 체험하게 하며 그들의 세계관을 변모시킨다. 이것이 문학이 지니는 중요한 전파적 힘이다(p33).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목은 서로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모든 분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제 성경적 관점과 교육 과정 속의 세속적인 면이 종합될 지점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문학 공부는 모든 학교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데, 그 이유는 문학이 인간의 최대 문제들을 직면케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소원과 갈망과 좌절을 나타내 주고 인간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통찰력을 개발 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 연구는 교육 과정의 구조에 있어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아마도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Knight, 1995).

나. ‘통합’ 수업의 필요성

통합 수업의 경우, 진리와 실재를 통합한다는 의미(Parmer, 2000), 기독교적 가치를 통합한다는 의미(Gabelein, 1991), 또 다른 차원으로는 교과목간 통합한다는 의미(Edlin, 2004; 박상진, 2006) 등이 있다. 첫째, 진리와 실재를 통합한다는 의미부터 알아보자.

일반교육과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적 통합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과통합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것은 Palmer의 설명처럼 성경적 의미의 진리추구가 단지 인식의 대상인 학생들의 통전적 경험이나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배움을 통하여 세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과 세계가 본래의 사랑의 형상으로 재형성시켜주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almer, 2000). Fowler(1999)는 이에 대해 ‘실재의 궁극적인 구조가 유기적, 상호관계적’ 이어서 우리가 세계를 알 때 세계가 우리의 한계와 책임과 잠재력에 대해 보내주는 미묘한 신호, 세밀한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창조세계 전체와의 상호성의 관계로 우리 인격 전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 하였다.

둘째, 통합수업의 기독교적 가치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자. 인간을 본래부터 타고난 통전적 존재(지, 정, 의의 존재)로 인식하고 전인교육적인 차원에서 교과통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합과 기독교적 가치 통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의도적으로 떠난 일반 교육과정으로서는 비록 다양한 교육적 구성요소를 올바르게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을 만큼 포괄적인 논리체계와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Gabelein(1991)은 그런 의미에서 세속교육자들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정박지에서 벗어나 아무 목적도 없이 미지의 바다를 떠다니기를 고집하는 세속의 교육자들을 괴롭히는 질문들이다’ 라고 하면서 통합의 구심점을 갖지 못한 그 교육과정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의 경우 통합의 구심점이 확실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 기독교적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또 다른 차원은 교과목간 통합의 의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식이 본래 유기적인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교과목간의 통합’ 을 의미한다(박상진, 2006). 일반 ‘통합교육’ 을 말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은 바로 교과 교육에 있어서 ‘교과들 간의 통합’ 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통합 교육과정은 ‘하나의 종합적인 학습 계획 아래 여러 가지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전체로서의 학습을 완성시키고, 인격성숙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으로서, 지나치게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 또는 학문을 위한 교육에 치우친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경험과 교과와의 분리 또는 생활과의 분리를 초래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통합 교육과정은 인간의 통합 지향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 교과와 생활과의 통합 등을 강조한다. 마치 독서를 할 때 등장인물, 배경, 구성, 갈등, 위기 등을 따로 분리해서 고찰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재결합을 시도하여 전체 책 속에서 저자가 나타내하고자 의도하는 중심 테마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의미 있는 구조적 전체성을 가진 인간의 삶으로 의미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과를 통하여 배우면서도 모든 주제와 지식이 지닌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통전적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합 교과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다. ‘문학통합’ 수업의 필요성

문학중심 수업과 통합중심 수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문학통합’ 수업은 문학작품을 맥락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교과 수업에 통합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통합하며,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는 총체적 수업이다. 여기서 문학통합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통합수업이란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유지하면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온전한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문학교육의 본질을 살림과 동시에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도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교재를 재구성하는 방안은 문학 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문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고 삶의 총체성을 이해하며 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인데 이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문학작품 활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기존의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벗어난 문학통합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문학 교과가 목표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문학통합수업이 선호된다는 것은 우선 교육과정 실천가인 교사들이 교과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경숙(2010)은 언어 사용 영역의 통합성을 강조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한 가지는 문학 체계가 실제 독서 생활에서 접하는 문학 작품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미(2009)는 교과서 동화가 원작 동화의 재미와 감동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아동들에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집필자가 원작을 교과서에 수록할 때, 분량을 줄이기 위해 혹은 학습 목표에 맞추어 원작 동화를 너무 많이 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지침서에 제시된 문학교육의 목표인, 문학 작품의 심미성을 맛보고 즐기게 하는 것이 어려우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발휘하기에 교과서 보다는 문학작품 자체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생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초월적 가치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Egan(1999)은 학령기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이해의 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약 5-9세는 기초적 또는 신화적 이해 단계로 극적인 대립이 있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 추상적 개념, 인과율, 대조되는 가치들을 잘 배운다. 8-15세는 낭만적 이해 단계로 상상, 예기치 않은 일들(상세한 내용도 포함), 이상주의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초월적 가치들을 가장 잘 배운다. 14-19세는 철학적 이해 단계로 일반적인 설명적 도식을 통해(이론, 신념, 세계관) 인과적 연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배운다. 즉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일으키는 적절한 단계의 내용이 잘 담긴 이야기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무시해왔고,

학습자 또한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과학자의 업적이 단지 과학적 지식의 발견과 증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에 근거한 의미구성능력과 과학학적 안목에 의한 것이었듯이, 학습 또한 개별 지식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현정(2009)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적 발달 못지 않게 정서적 발달을 강조하는 Egan의 이야기 형식 모형에 기반하여 이야기 형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이야기의 구조와 같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녀야 하고, 이항대립쌍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두 대립쌍의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중재 및 해결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평가 단계 등이 잘 되어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진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차시별 학습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 준비 과정이 교사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가장 큰 한계이다. Egan의 이야기 형식모형은 재구성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이야기를 덧붙이는 형식이어서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기존의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점인 교육과정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가는 한계도 있다.

Lauritzen과 Jaeger(1997)는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이야기가 맥락을 제공하고 학습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내러티브 교육과정은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여 학습을 통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였다. 내러티브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유의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을 연결시키는 본질적 요소를 ‘맥락’이라고 보며, 맥락에 의해 전통적인 교과 영역 접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선행 문학통합단원 개발모형인 내러티브 모형과 이야기 형식모형의 비교

본 연구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두 모형의 단계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문학통합단원 개발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독교학교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원하는 교육주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통권의 문학작품을 가지고, 단원 수준의 단위로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나 모형이 적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발절차를 명료화 하는 방식은 절차에 대한 청사진 없이 개발된 두 가지 사례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학통합수업은 어떤 절차를 내포하고 있는지 단계화 하고, 각각의 절차들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기독교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 개발

1. 기독교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 개발사례

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단원(335)

1) 단원 개발 내용

C기독교초등학교 4학년 교사들은 이 작품을 바탕으로 총 29차시로 단원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29차시 단원개발 차시별 학습내용과 학습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기독교적 가치를 명시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다음의 < 표 3-1>에서 다루었다.

< 표 3-1> 사자와 마녀와 옷장 단원 지도 계획

통합 교과	차시	학습 내용	주요개념 및 가치	활동 아이디어
국어	1-9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 듣기 (교사가 읽어주기)	상상하며 문학 즐기기	삽화 보여주며 책 읽어주기
	10-11	전체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여 그림과 글로 표현하기		조각 그림 잇기
	12	역할극 연습하기	상상한 것을 언어와 동작으로 표현해보기	연극하기
	13	(5개의 모둠 구성/극본 나눠주기/ 모둠 별 연습하기/소품 구상하기/ 주말에 각자 연습 해 오기 숙제)		
	14			
	15	에드먼드와 하얀 마녀를 통해 깨어진 관계 를 돌아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죄의 결과 (관계과과)	관계 돌아보기 나의 실천 다짐
	16			더 심오한 마법을 입상에 적용하기
	17	심오한 마법& 더 심오한 마법의 특성을 살 펴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기	율법& 은혜 성화된 삶	아슬란은 ***이다. 혹은 팝업북
	18	아슬란의 속성을 살펴보고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내기	예수님의 성품	
	19	무대 리허설		
	20~21	오프닝 변신의 방	기쁨 창조, 타락, 구속	나니아 축제의 날 1.연극공연
	22	유혹의 방	선택과 결정	2. 유혹 견디기
	23	정화의 방	은혜	3. 과학실험

335) C기독교초등학교는 2004년도 처음 「사자와 마녀와 옷장」 문학통합단원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9년간 이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외국에서 문학통합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연구 및 적용하였다. 장점은 Backward Design 모형을 적용하여 목표설정 부분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년 별로 그 시기에 가르치고 싶은 주제에 알맞은 문학작품을 선정한 후, 해당학년 교육과정 목표들을 살펴 보고, 이와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연계를 찾아본 다음, 학습목표를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국어 다섯 마당 중 이야기 마당의 소재들을 교과서 밖의 새로운 문학작품으로 바꾸었다. 그 당시 4학년에서 시도된 작품이 「나니아 연대기-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다.

	24	축제의 방	회복	4. 아슬란과 함께 친국 즐기기
음악	25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26~27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선으로 표현하기 이야기 장면 나누어 선택하기		
미술		바탕이 될 머메이드지 만들기		선으로 표현하기
	28~29	각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머메이드지를 나누어 자신이 선택한 장면을 선으로 표현하기		

(C기독초등학교 사자와 마녀와 옷장 자료집, 2012, p17-18)

2) 단원개발 절차

A. 개발학년선정, 교육과정목표 검토하기, 작품 선정하기

- 핵심 가치 찾기, 교수학습목표, 평가 방법
- 문학통합단원 실행, 전체 통합단원 평가

1. 문학통합단원 사례 분석

문학통합단원 사례 분석은 위 사례를 바탕으로 문학통합단원 개발절차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례에 드러나 있는 단원개발 과정을 정리하면 <표3-2>와 같다. 단계별로 개발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표 3-2> 기독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개발 절차

과 정	기독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개발 절차	비고
1	학년선정	
2	작품선정	핵심가치 고려
3	교육과정목표 검토	문학영역교수학습목표, 교육내용, 성취 기준 점검
4	교수학습목표 설정	핵심가치 찾기, 작품 속 기독교적 가치 관, 세계관 질문 찾기
5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지도안 수정 및 수업자료 점검을 위한 수시 동학년 회의 진행
6	평가 계획	
7	문학통합단원 실행	‘○○DAY’ 를 정해 전일 행사 고려
8	단원개발에 대한 평가	설문지, 자료집 작성

1) 학년 선정

먼저 문학통합단원 개발학년을 선정한다. 보통 동학년 단위에서 문학통합 단원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학년이 대상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통합단원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2) 작품선정

개발 여부를 결정하면 어떤 문학작품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문학작품의 선택은 동학년

교사들의 구성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교사가 감동적으로 읽은 좋은 작품이거나, 이런 내용의 작품을 다루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는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 라브리의 성인경(2012)은 다음과 같은 문학 선택 기준을 말하기도 하였다.창의성과 상상력이 있는가? 메시지와 사상이 건전한가? 종교적 색채가 잘 드러났는가? 도덕성이 있는가? 편집이 잘 되어 있는가?

고선아(2012)는 문학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두 가지로 압축하였다. 한가지는 예술성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관이다.

교사들이 말하는 작품 선택 기준은 교사가 좋아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교사는 아동문학도 많이 읽어야 한다.

문학작품은 그 학년의 특성이나, 상황, 시기적 필요에 따라 선정 된다. 예를 들면 나니아는 키에런 에건의 낭만적 이해단계 즉, 모험과 상상을 즐기는 초등 중학년 수준에 맞게 선정되었다. 또한 너도 하늘말나리아는 시기적으로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가족 문제, 우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작품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과서를 대신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고르는 것이기에 왜 선정했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이유가 확실해야, 단원을 실행하는 내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문학통합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과정목표 검토

우선 문학 통합 단원 개발의 형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반영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반영하는 경우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문학작품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연관된 교육과정목표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5학년 동학년 교사들이 단원을 개발한다면 참여대상은 5학년 학생들이고, 5학년 교과용 지도서를 살펴 5학년의 지도 내용, 즉 성취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성취기준을 반영하는 문학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전에는 문학단원의 성취기준을 주로 검토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 추세는 학기별로 국어 교과과정 전체를 펼쳐 놓고 문학통합 수업은 어디에 배치할지, 무엇을 빼야 하는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재구성 하는 학년이 늘고 있다. 보통은 문통수업 진행 여부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한다.

후자의 경우 기술적인 목표보다는 가치나 주제의 목표가 설정된다. 보다 문학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문학작품이 말하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단원개발이다.

문학통합수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문학 작품의 목적은 지은이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지 수사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 쓰여진 목적도 문학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문학 수업을 하는 방법은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문학 작품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수업의 효과는 떨어진다.

4) 교수학습목표 및 학습활동 설정

교육과정 목표도 검토했다면, 다음은 핵심가치를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 교사들은 기한을 정해 문학 작품을 읽기로 합의한 후,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밑줄을 치거나 따로 적으며 핵심가치를 표시한다. 동학년 회의에서 개인이 찾은 핵심 가치를 나눈 후, 그 중에서 수업에 다룰 만한 가치들을 선별한다.

다음은 학습활동을 결정해야 한다. 학습활동들은 목적에 따라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문학작품 전체 이해를 위한 학습활동, 핵심가치 이해를 위한 학습활동, 표현하기 위한 학습활동, 축제처럼 즐기기를 위한 학습활동 이다. 이 네 가지 범주는 작품과 작품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표현해보고, 즐기는 위주의 학습활동이다. 고선아(2012)는 '문학'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그는 먼저 문학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해야 하고, 다음은 학생들이 스스로 상정을 찾으려 노력하도록 수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목표가 결정되었으면 목표를 두고 지도안을 작성한다. 우선 작성 전에 교사들끼리하고 싶은 활동을 브레인 스토밍한다. 브레인 스토밍하다보면 좋은 수업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때가 교사에게는 무척 감동적인 순간이다. 어느 정도 수업 스케치를 하면 대강의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나누어 맡아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다. 작성한 지도안을 모아, 수업 흐름을 결정해 차시를 배열하고, 다시 회의를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수정 보완한다. 또는 가치를 뽑았으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배열을 한다. 장 별로 가치를 뽑고, 꼭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치를 뽑고, 다시 훑으면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축제의 날 같은 경우 핵심 가치 중에서 더 핵심 가치를 뽑는다. 한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하는 가치들을 다시,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보고 교수학습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실행한 후에 문제점을 반영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수정하기도 한다. 보통 수업 이 주 전에 국어교과 단원지도계획이 나오고, 한 주 동안은 수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기 위해 지도안을 수정하고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6) 평가 계획

평가는 보통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업시간에 작성한 활동지, 또는 모둠으로 협력하여 수행한 활동결과나 역할극 등으로 평가한다. 지도한 단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보통은 전일 수업 때 역할극이나, 공연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내 시상도 한다. 그 외에도 모둠 활동지, 개인 활동지 등 수업결과물을 모아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문학통합단원 수업 평가를 국어수행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 학기말 성적표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7) 문학통합단원 실행

문학통합단원을 실행한다. 한 주에 국어 시간 6차시 정도를 문학통합수업으로 진행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지도안을 작성한 교사가 그 시간의 수업 방법을 안내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해 준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 방식에 맞게 변형,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역시 존중된다. 그리고 수업을 먼저 한 교사가 활동 대비 시간의 충분성, 학생들의 반응 등 먼저 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그것도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 문학통합수업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교사들 간에 소통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책 선정, 핵심 가치 추출, 지도안 작성 등 모든 것을 교사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에게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팀으로 과제를 마치면 다음 번에는 그 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8) 피드백 수집하기

수업을 다 마친 후에는 참여자 피드백을 수집한다. 주로 개발자인 교사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주로 수업 마친 후에 바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 수업 자료집은 보통 교수학습지도계획안, 학습지 등만 자료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문서를 접하고 문서 너머에 있는 개발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개발자의 의도를 모른다면 수업은 수박 겉핥기 식의 수업이 될 우려도 높아진다. 그래서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수업 소감을 넣는다. 그러면 보다 생생한 수업의 장면들을 담을 수가 있다. 문서를 통해 문학 통합 수업의 가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가치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료집에 사람들이 전하는 가치를 넣기 위한 한 방법이다. 피드백을 넣은 전체 자료집을 만들면 수업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학교 실정에 맞는 지도안을 남길 수 있고, 다음 번 문학통합 수업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함께 하다 보면 실력이 생긴다.

IV. 기독교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 실행의 효과성 평가

1. 문학통합 단원 실행의 효과성 평가 방법

가. 평가 연구 개요

평가 연구는 단원개발, 시행 참여관찰, 및 피드백 수집, 평가자료 분석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 방법 위주로 접근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학통합수업의 학습결과로 기대하였던 요소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요소들의 관계와 패턴도 탐색하고 발견하여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관찰 면담을 활용한 질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표4-1>은 연구 수행 일정이다.

<표 4-1> 연구수행 일정

기간	연구 절차
2012.2-2012.3	단원개발참여자 질적 면담을 통한 예비 연구, 연구 참여학년 선정
2012.3-2012.4	4학년 '나니아' 단원 참여관찰, 문서수집
2012.5-2012.6	5학년 '너도 하늘말나리아' 단원개발 및 실천, 문서수집
2012.7-2012.8	1차 자료 정리 및 자료 분석
2012.8-2012.9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자료 개발
2012.9-2012.11	4학년 '나니아' 단원개발 참여자 및 5학년 '너도 하늘말나리아' 단원개발 참여자 질적 면접, 4.5학년 학생들 설문조사
2012.11-2012.12	2차 자료 정리 및 자료 분석

1. 교사 피드백으로 본 문학통합단원 개발의 효과성

교사들의 피드백 자료로 수집한 문학통합수업의 장점은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기독교 세계관을 전달하기 효과적이고, 수업 참여자들이 즐거워하는 몰입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들간에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가. 기독교적 가치 함양

교사들은 우선 문학통합단원은 교과서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수업의 재료로 복음적인 Text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문학작품 속에 전달하고 싶은 가치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너도 하늘말나리아」는 아이들을 더 견고히 자라게 하는 삶의 고통, 「트리캡의 샘물」은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삶, 「샬롯의 거미줄」은 진정한 우정, 「하이드」에서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순수한 사랑, 「피노키오」는 성화를 다루고 있다. 삶에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작품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문학통합수업을 통해 그런 가치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G 교사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G 교사: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묘사가 잘 되어 있었고 심리가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엄청난

몰입이 숨어있는 정말 좋은 책이란 걸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다.

둘째, 실제로 수업을 하며 적용해 보는 기회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다. 일반수업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의도된 접근이 가능하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화된 수업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개발된 대부분의 단원에서 수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투입하는 수업이 바로 가치관 통합수업인 이유이다.

B 교사: 「사자와 마녀와 옷장」 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 적이 있다. 심오한 마법과 더 심오한 마법을 할 때, 하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수업시간에 울어도 될까, 수업을 하면서 제가 깊은 감동과 깊은 깨달음이 와서 수업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어요? 라는 친구도 울지 말아요 하는 친구도 없었다. 그 때 고난 주간, 부활절이 있었는데 나니아의 핵심과 너무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 제가 극복하기 힘든 감동이 있었다. 둘이 너무 힘들어했다. 갈 때까지 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니아 수업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했다. 아무런 화해를 위한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깊은 은혜 가운데 녹았다. 일단 제가 바뀌게요. 그 사람이 싫지도 않고, 끔찍이 미웠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했는데 감동이 없을 때랑 똑같으니까 마음을 여시고, 자세를 바꾸시고 이전보다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저도 나니아에서 말하는 은혜와 용서의 가치가 녹아들었다³³⁶⁾. 너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일어났다. 어떤 신비로운 경험 없이, 저도 제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저도 많이 변했고 아이들도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복수할 수도 있지만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다. 더 심오한 마법은 은혜,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심오한 마법은 용서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심오한 마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강력한 사랑으로 받는 것. 저도 무척 의미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가치 속으로 들어가서 한 동안 놀랐던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Text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가치를 습득할 기회가 주어지고, 수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학통합수업은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나. 수업의 몰입도 향상

문학통합수업의 장점은 몰입하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문학작품을 한 권을 통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몰입이 가능하다. 한 권을 통째로 읽으면서 작품 전체에 빠져들면서 깊은 배움이 일어난다. 이미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해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더 뜨겁게 반응한다.

336) 자료집에 보면 K 교사도 비슷한 효과를 언급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수업 후에 자꾸 짜증내던 동생이 야구를 하다가 아웃이 되는 순간, "잘 됐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심오한 마법을 버리고 더 심오한 마법을 써서 위로를 해 준 친구, 자신의 과자를 말도 없이 가져간 친구에게 다시 달라고 툭 쳤는데 숨쉬기 어려울 만큼 엄청 세계 자신을 때린 친구에게 화가 났었는데, 용기를 내고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한 친구.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이번 수업을 가장 빛나게 해 주는 이유가 아닐까? 라며 기독교적 가치가 내면화 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수업의 효과를 언급했다. (2012, 사자와 마녀와 옷장 자료집, p4-5)

L 교사: 나니아 시리즈로 수업할 때 아슬란이 원래 창조된 나라가 하얀 마녀의 지배를 받게 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평소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한 일에 관심이 적었다. 지구 온난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햄버거 케넥션, 광우병 등을 다루었다. 그런 것이 사회 시간에 일반적으로 다루었으면 아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겼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학 수업과 연계해서 나니아 나라가 하얀 마녀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세상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나누었던 게 기억이 난다. 몰입도가 다르다. 작품에 빠져드는 몰입도가 다른데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다. 보통은 2차시 정도, 앞뒤를 자르거나 각색된 작품을 자꾸 대하다가 전체 작품 한 권을 통으로 다 읽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작품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둘째, 수업 시수를 집중 편성하므로 몰입이 가능하다. 교과간 통합을 하면서 한 권의 문학작품이라는 한 맥락 안에서 중요한 주제를 엮어 배우게 되면서 몰입이 가능하다. 두 가지 개발 사례 모두 20차시 이상의 단원으로 한 주에 평균 6차시(국어과목 주당 시수) 이상을 수업하기 때문에 단원에 몰입하게 된다.

C교사: 사회 교과서 보면 소수자 권리, 다문화, 새터민 등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2차시 분량밖에 안되게 제시되어 있다. 2 차시 동안,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와 닿을까? 하나의 스토리로 탈복자 이야기라든가, 그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어떠한가? 등 문학을 통해서 국어과와 통합을 하면 사회과 2시간 국어과 6시간 정도로 단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책을 읽으면서 소수자의 한계에 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인물의 삶을 이해한다.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 국어 6차시 정도 사회 2차시 정도 하면 소수자의 이야기 한계, 예를 들어 새터민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새터민의 삶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면 사회과에서 새터민, 다문화 등 많은 소수자들이 있다고 하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단순하게 가르치면 너무 건조하고 머리로만 들어가는 지식이 되기 쉽다.

셋째, 몰입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문학통합수업의 가장 큰 효과이다. 나니아Day 때 루시 역에 어울리는 옷을 사고 소품을 사고 머리를 꾸미하고, 아이들 보다 더 나니아에 푹 빠진 것 같았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었고, 이야기 속 한 인물이 되어 나니아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교사도 있었다. 책 읽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책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며 집중하는 모습에 놀랐다는 교사는 준비하는 일은 분주했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과 또 나니아 연대기의 다른 책들을 스스로 더 구입하여 계속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나니아Day에 대한 소감을 쓰도록 했는데 학급의 모든 아이들의 글이 한 명도 빠짐없이 평소 쓰는 글보다 엄청난 분량의 글들에 흥미와 재미, 깨달은 느낌들로 가득 차 있었다며 그 몰입도를 체차 강조하였다.(2012, 사자와 마녀와 옷장 자료집, p4-5)

B 교사: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복상시간과 국어시간을 이용해서 1장부터 쪽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눈을 반짝거리며 열심히 듣고 묘사가 많은 장면에서는 상상을 통해서 머나먼 세계로 떠난 듯한, 깊은 생각에 잠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나 또한 책을 읽어주면서 상상에 잠기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깊이 몰입하면서 머리에만 머무는 수업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수업이 될 수 있다.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 가치는 삶 속에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수업에 얼마나 몰입했는가 여부를 수업 후 아이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업의 효과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통합단원이 수업에 몰입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 교사: 「사자와 마녀와 옷장」 수업할 때, 심오한 마법에 더 심오한 마법에 대해서 다른 차시가 있었다. 학교나 집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심오한 마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렇게 행동할 것인데, '더 심오한 마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행동하겠다 한 것이 참 좋았다. 수업 후에 그 영향이 오래갔다. 그 수업 후 일기 쓴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아이들의 관계나 행동들도 많이 달라지고, 다짐한 내용을 잊어버린 친구가 있으면 서로 일깨워주었다. '인류의 구속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쓴 작품이구나. 아이들이 자기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자기의 눈 높이에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부분이 책에서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그 책을 읽었다면 '나니아 세계는 참 멋지다. 재밌다.' 그 정도로 마쳤겠지만, 수업으로 가져오니까 그 부분을 딱 짚어 줌으로 말미암아 작가의 원래 의도가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 수업의 질 개선

문학통합단원을 개발하면 수업의 질이 개선된다. 우선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해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개선된다.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모은 후, 여러 차례의 피드백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끌어내므로 보다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수업에서는 거의 교사들 각자 고민해서 각자 전달한다면 문학통합수업은 단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보다는 동학년 교사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 구성이 알차다.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이 먼저 문학 통합 수업의 매력에 빠져게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상의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에 교사들이 먼저 만족하는 수업이 실현된다.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S 교사: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수업을 준비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계구성해 내는 동학년 선생님들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지 않고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동학년 선생님들과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업보다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수업 내용에 몰입하면서도 「너도 하늘말나리야」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자신을 찾아가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

라. 배움 공동체 형성

공동으로 단원을 개발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눔이 풍성해 지고, 동학년 교사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수업 전반에 관한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우선은 해당 ‘단원’에 관한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즉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텐데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대비 상당히 수준급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사 변동이 크지 않아 기존의 학년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가 쉽다. 또한 1,2,3,4 학년은 2년 연임제로 학급을 운영한다. 즉 2년에 한번 학년을 이동하기 때문에 변동 시기가 늦고, 동학년 교사들과 2년을 함께 호흡하다 보니 단원개발이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다. 중앙기독교초등학교 문학통합단원 개발 사례가 풍부한 이유가 있다. 다음은 「너도 하늘말나리아」 단원개발을 했던 교사가 말하는 장점이다.

S교사: 한 번씩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때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잠재력이 터져 나오는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역시 혼자 준비하는 수업보다 협력해서 준비하는 수업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 지도 경험할 수 있었다. 동학년이 팀으로 단원을 개발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동학년 선생님들과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 지루했지만 팀워크를 다질 수 있어서 좋다.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문학통합수업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동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할 때는 아이디어도 풍성해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길러진다. 타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서 우리의 환경에 최적화된 된 수업을 개발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의도, 가치, 철학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수업’까지 나눔이 확장되어 문학통합단원 뿐 만 아니라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배움의 공동체가 구현된다. 단원개발을 통해 수업을 공유해보고, 관목적으로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 교사들은 다른 수업들도 공유하는데 더욱 개방적이게 된다.

G 교사: 문학통합도 하지만 교과서 재구성을 다시 했는데 나니아를 한번 해보고 나서 국어교과서 이대로 가르치지 말고 재구성을 해보자 했다. 여름방학 끝나기 이틀 전에 1반 선생님과 함께 우리집에서 3시간 동안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면서 묶을 건 묶고 빨간 빼고 2학기 교과서를 완전히 재구성했다. 정서는 하이디 하고 교과서 하고, 시단원에서 시는 가져왔지만 교과서 시는 안하고 전기문 배우는 부분도 전기문의 단편만 가지고 줄거리 간추리는 게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위인 한권 온전히 읽고 모르는 날말 사전도 찾아보고 교과서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만 가져와서 위인전 한 권을 간추려 본다. 이미 하던 거는 어떻게 수업을 더 잘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Ⅶ.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가지 개발사례를 살펴서 문학통합단원의 개발 과정을 분석하고, 그 수업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교사들과 함께한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하였다.

1.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교사와 학생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문학통합수업의 효과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초등학교에서 문학통합단원사례 「사자와 마녀와 옷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학통합단원 개발은 다음의 8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문학통합단원을 실행할 학년을 선정하고, 해당 학년 학생들의 발달적 필요를 검토하여 시의 적절한 작품을 선정한다. 작품의 핵심 가치를 수업목표로 넣을 뿐 아니라, 기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문학영역 교수 학습 목표 및 성취기준을 검토하여 문학통합단원에 접목할 교수학습목표를 설정한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동학년 교사들이 나누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 후, 동학년 회의 시간에 수정, 보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단원의 흐름에 따라 평가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한 후, 문학통합단원을 실행한다. 실행 후에는 자유기술, 설문 방식을 통해 참여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개발단원 평가를 하여 다음 학년도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문학통합수업의 효과성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었다. 첫째, 문학통합단원은 현행 국정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우선 복음적 내용이 담긴 텍스트로 수업이 가능해지며, 복음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 가지고 수업을 하며 적용하는 기회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가 함양될 수 있다. 둘째, 수업의 몰입도가 향상되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체험을 하는 것이 몰입도를 높이고, 수업시수를 집중 편성하여 더욱 몰입하게 한다. 셋째, 수업의 질이 개선 된다는 점이었다. 동학년 교사들이 모여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해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다음 번 단원실행 때는 지난 해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여 수업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수업이 가능해 졌다. 넷째는 배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문학통합단원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다른 교과 수업까지 확장되면서 함께 개발한 문학통합단원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수업에서도 배움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다.

2. 논의 및 주의점

문학통합단원 개발절차 및 효과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의점이 있다. 첫째, 단원개발은 효

과적 재구성 방법이기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 효과성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통합단원은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하며, C. Mason의 표현대로 잘려진 문학작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문학 작품 한 권을 통째로 읽으므로 수업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공동 개발과 집중적인 시수 편성으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문학통합단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도화선이 되므로 개발된 문학통합단원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학통합단원이 개발되어 다양한 문학통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단원개발절차는 각 단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작품을 선정할 후, 핵심가치에 따라 교수학습목표를 설정하는 2,4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단원개발에서 작품선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무수히 많으나 모든 작품을 수업을 통해서 다룰 수는 없다. 최대 1년에 2개 정도의 문학작품을 다룰 수 있고, 한 단원에서 20차시 이상을 다룬다면 당연히 작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수학습지도안을 짜는 5단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짤 것인지 결정되는 2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단계에서 선정된 작품이 4단계, 교수학습목표를 내용을 전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2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2단계는 자연스럽게 4단계를 결정한다. 핵심가치를 잘 추출해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감동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어떤 심미성을 느끼게 할 것인지 문학작품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읽어보고, 검증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정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목적에 충실한 작품을 골라야 문학통합수업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단원을 두 번 이상 할 때에도, 다시 생생하게 전문을 읽어야 문학의 울림을 전할 수 있다.

단원개발 전체에서의 주의점은 먼저 사례가 소설 한 장르의 문학통합단원을 바탕으로 절차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SF소설, 또는 전기문 등 다른 장르의 작품을 다룰 때 문학통합단원 개발 양상의 변화 여지가 있다.

또 지속적인 단원개발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이 재구성을 장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다. 보통 한 학기에 잘 준비된 한 단원만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대감도 적당하고, 에너지도 집중해서 좋은 단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 열심히 개발한 단원을 한 회만 쓰고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에너지 낭비의 우려가 있다. 지속적인 연계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절차의 특정 단계에서의 주의점은 4단계 교수학습목표 설정 시 흥미 위주의 수업 구성을 지양해야 한다. 흥미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수업이 흥미 위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전일 행사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다. 문학작품의 이해에 초점 맞추기 보다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활동 위주로 전일 행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흥미 위주보다는 단원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문학작품의 이해라는 맥락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단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시 교사들 간에 서로의 수업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각자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을 모든 수업에 관철시킬 수는 없다. 단원개발에서는 동학년 교사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색깔을 주장하다가 공동체성을 흐려서는 안된다. 계획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지도안을 작성하는 교사의 수업 방식을 존중하고, 각자의 학급에서 수업 진행 시 자신이 수업을 나름대로 변형하여 자신의 색깔에 맞게 수업하면 된다. 자신의 색깔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단원개발 과정은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단원 실행 시 주의점은 우선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작품을 전부 읽도록 하는 것이 수업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 할 정도 중요하므로 꼭 읽도록 강조해야 한다. 재미있는 작품을 선정 하더라도 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것이 동기 부여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보통 수업 한 달 전부터,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가정에 안내를 하지만, 책의 구입, 독서가 만만치 않은 학생들도 있다. 가정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사가 꾸준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학년도가 시작할 때 안내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독교적 가치를 수업에 통합할 때, 주의해야 한다. 다른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가치는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문학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정답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고 효과적 발문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독특한 이해를 하는 것도 격려하고 수용해야 한다. 문학작품의 특성상 작품의 메시지는 작가가 의도하기도 하지만 독자가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김수홍 (고려대)

참고문헌

경혜주 (2005). 현대소설분석을 통한 교육적지향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락니란 (2009). 초등국어교과서 내용에 대한 세계관적 분석과 평가.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인환 외 (2007). 문학교육론 제 5판. 서울: 삼지원.
 (1996). 소설론. 서울: 삼지원.
 김대행 외 (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서울대출판부.
 김진경 (2007). 문학교육의 위상과 정체성 비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준 (2008). 기독교적 내러티브를 통한 사회사업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영 (2007). 기독교학교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욱 (2010). 이야기 형식에 근거한 초등도덕과 수업구성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담 (2005).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문학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진 (2009). 문학중심통합 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경민 외 (2010).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박상진 (2006).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박순숙 (2011). 아동문학중심초등국어과 통합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철화 (2010). 기독교학교의 통합교수 방법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은주 (2006). 문학교육을 위한 동화세계 구성방안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숙 (2010). 문학중심통합단원 구성방안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광석 (2004). 세계관 학교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극복.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대용 (2004). 7차 문학 교육과정의 원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론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연화 (2009). 국어교과서단원구성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미 (2009). 원작동화를 활용한 문학교육방법.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미 (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현정 (2003).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해경 (1999). 중학교 소설지도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성은 (2005).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등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교은 (2007). 읽기와 문학 통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전정희 (2010).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현정 (2009). Egan의 이야기형식모형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욱 (2002).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실태조사안산동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종신대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광진 (2003). 7차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희승 (2010). 개혁교회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명숙 (2006). 읽기 교육과정과 문학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학교육학, 19, 89-127.
 Andreola, K. (2007). 샬롯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 (임종원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Edlin, R.J. (2004). 기독교교육의 기초. (기독교학문연구회교육문화 역). 서울:그리심.
 Gabelein, F.E. (1991). 신본주의교육.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Knight, G.R. (1995). 철학과 기독교교육. (박영철 역). 대전: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Levison, K. (2006).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임신희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Levison, K. (2006). 샬롯메이슨 교육법. (임신희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Mason, C. (2010). 교육철학. (노은적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Overman, C. & Jonhson, D. (2007). 진리와 하나님 교육. (김성훈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원진은 2003년 출판)
 Palmer, P.J. (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중태 역). 서울:IVP.

초록

본 연구는 면담, 관찰, 문서분석 등을 통해 한동대학이 갖는 독특한 맥락 속에서 한동대학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과 그 특징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술한 사례연구이다. 학생들이 말하는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성장'이었고, 구체적 주제는 첫째, '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둘째, '인성: 일상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셋째, '전공 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과정', 넷째, '공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사회로의 준비', 다섯째, '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로 요약되었다. 이런 학생들의 경험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공식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성제도적 요인과 비공식 교육과정, 구성원 공동체 특성, 구성원의 공유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연성문화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울 것, 제도 뿐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이해할 것,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동대학교, 교육적 경험, 대학문화, 전인적 성장

I. 서론

혹자는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학은 좋은 학생을 뽑는다는 관심이 많지만, 뽑아놓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덜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4년간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인 현재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고, 국가의 경쟁력이 고등교육 단계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의 질과 큰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최상덕 외, 2008; 신현석, 2008). 개인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 2009년 현재 약 320만 명(37%)의 학생들이 각종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새로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의 시간 및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는다 (신정철 외, 2008). 4년간의 기회비용, 또한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져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오육환, 2003), 중등교육의 목표가 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고등교육의 질'이라는 주제하에,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로 이어졌다 (최정윤 이병식,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학습성과를 질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측정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투입과 과정요인으로 나누고, 투입요인에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을, 과정요인에는 학교의 기관적 특성,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학교만족도, 물리적 시설, 풍토 및 비전등을 제시하였다 (김안나 외, 2003; 김은정, 2005; 김현관 외, 2001,

337)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방송통신대학 277,372명을 포함해 총 3,189,951명이 각종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통계 사이트)